



김홍석_인간질서(노동법, 예술, 사랑을 위한 책상)(서예, 공과금 정리, 자녀를 위한 책상), 2019, 혼합재료, 가변크기



서현석_먼지극장5, 2019, 퍼포먼스, 10분, 풍동실, 퍼포머-안연우

미술관에서 마주한 ‘미완의 폐허’

미술은 문화예술 장르 중에서도 특히나 예전과는 다른 위상을 갖게 됐다. 미술의 정의와 영역은 모호해졌고, 제작 방식과 감상 방식 또한 달라졌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서현석·김홍석의 ‘미완의 폐허’는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고 자본과 스펙터클이 우리 감각을 사로잡는 오늘날, 미술이 유효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는 북서울미술관이 2014년 시작한 ‘타이틀 매치’의 6번째 행사다. 두 작가가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협업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상승효과를 끌어내는 2인전 형식이다. 서현석(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은 설치와 영상,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먼지극장’ 연작을 선보였다. 북서울미술관이 ‘폐허’로 변한 모습을 담은 VR(가상현실) 영상은 예술의 이상을 상실한 오늘의 상황을 가리킨다. 미술관 바깥 벤치에 놓인 구멍 뚫린 책, 텅 빈 전시실에서 옛일을 회상하는 내레이터 등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작들이 이어진다. 서현석은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아방가르드의 비전이 무너진 오늘날의 작가로서 허망한 시선을 폐허가 된 미술관 이미지로 담았다”고 말했다.

서현석의 ‘폐허’는 김홍석(상명대 공연영상미술학부 교수)이 선보이는 ‘미완’의 예술과 이어진다. 김홍석 ‘인간질서’ 프로젝트는 완충재로 취급되는 스티로폼을 활용한 조각 ‘불완전한 질서개발(의지)’이나, 500개 사과가 썩어가는 ‘사과탑’ 등으로 이뤄졌다. 예술은 이러저러한 것이어야 한다는 정형성을 여러모로 비튼 작업이다. 김홍석은 “‘인간질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인식체계 및 규칙뿐 아니라 미술을 수용하는 범주에 대한 믿음도 의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소 특징적인 서현석 작업과 개념미술 성향의 김홍석 작업을 대조하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서현석 작품은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나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었다. 이번 전시는 국공립미술관 최초로 대규모 신작을 소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전시일정(장소) 9월 15일까지(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관람료 무료
☎ 02-2124-5201



이병찬, CREATURE, LED, LED RGB, 모터, 플라스틱, 조화, 가변크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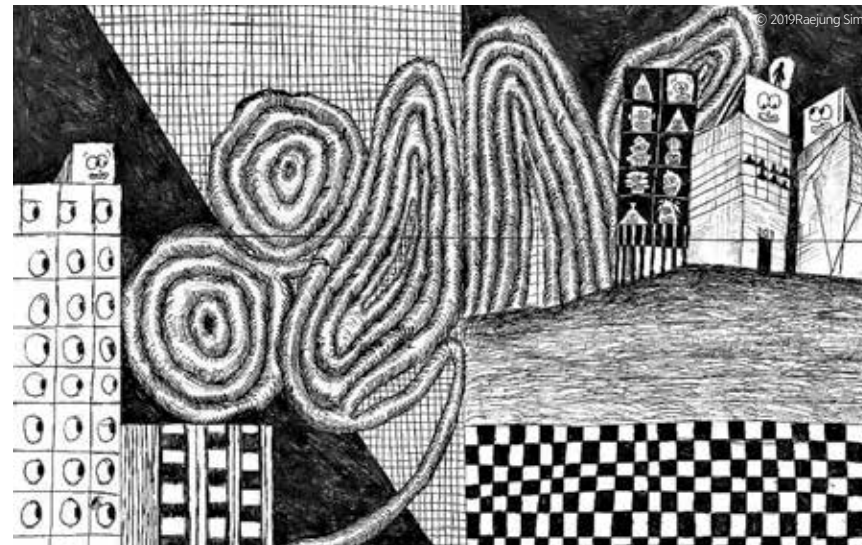
기민정, 조용해서, 유리를 문지르고, 천, 유리에 드로잉, 가변크기, 2019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만나는 한국미술의 내일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송은문화재단은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특별전 '서머 러브: 송은 아트큐브 그룹전' 3번째 행사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송은아트큐브 전시지원 공모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작가 16명의 신작을 소개하는 자리다.

구은정, 기민정, 김준명, 김지선, 박희자, 송기철, 신이파, 오제성, 이병찬, 이정우, 이주원, 이채은, 유영진, 양승원, 한상아, 황문정 등 한국 미술의 내일을 말해주는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업이 나왔다.

전시일정(장소) 9월 28일까지(송은아트스페이스)
관람료 무료
☎ 02-3448-0100



심래정, 축축한 터널(Damp Tunnel), 2019, 종이 위에 잉크, 21 x 29.7cm

전시일정(장소) 8월 25일까지(아라리오뮤지엄인스페이스)
관람료 무료
☎ 02-736-5700

심래정의 ‘B동 301호’

삶과 죽음, 인체 작용을 탐구하는 젊은 작가 심래정의 개인전 ‘B동 301호’(B-301)가 아라리오뮤지엄인스페이스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면서 신체 기관에 관심을 두게 됐다. 평소 사회면 기사와 인체 관련 서적, 동영상을 검색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드로잉한 뒤, 이들을 연결해 새로운 맥락의 이야기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완성한다. 작가의 집 호수에서 제목을 따온 이번 전시 또한 인체를 소재로 삼았다. 애니메이션과 드로잉, 설치, 벽화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펼쳐냈다. 심래정이 손으로 쓱쓱 그린 드로잉 애니메이션은 전율하는 선들이 인상적이다. 이번에는 애니메이션이 1970년대 지어진 건물의 적벽돌에 그대로 투사돼 리드미컬함을 더했다.



재난 영화와 코미디가 만나면 영화 ‘엑시트’

영화 ‘엑시트’는 뻔한 재난 영화 공식을 따르지 않는다. 오글거리는 신파도, 우왕좌왕하는 무능력한 정부도, 사람들을 구해내는 영웅도, 짜증을 유발하는 민폐 캐릭터도 없다. 대신 그 자리를 신선한 웃음이 채운다.

용남(조정석 분)은 대학 산악부 에이스 출신이지만, 몇 년째 취업 실패로 눈칫밥을 먹는 백수다. 큰 누나(김지영)에게는 구박당하고, 조카에게는 무시당한다. 놀이터 철봉에 매달려 체력을 단련하는 게 주요 일과다.

용남네 가족은 모친 현옥(고두심)의 칠순을 맞아 신도시에 있는 한 연회장에 모이고, 용남은 그곳에서 자신이 짝사랑했던 동아리 후배 의주(임윤아)와 어색한 재회를 한다. 연회장 부점장인 의주는 용남과 달리 취직했지만, 남자 상사의 치근거림을 견뎌내는 등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칠순 잔치가 마무리될 즈음, 도심에서 탱크로리가 폭발하고 유독가스가 빠른 속도로 퍼진다. 바닥부터 차오르는 유독가스는

점점 위로 올라온다. 용남과 의주는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 가족들을 무사히 대피시킨다. 단들이 고립된 용남과 의주는 필사의 탈출을 시작한다. ‘쓸데없다’는 핀잔을 듣던 산악동아리 활동이 생존의 수단이 된다. 두 사람은 완강기 밧줄을 묶고 건물 외벽을 맨손으로 오르거나, 빌딩 숲을 넘고 뚫는다.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재난 대처 요령도 신선하다. 두 사람은 쓰레기봉투를 방화복처럼 만들어 뒤집어쓰거나 고무장갑, 분필, 포장용 박스테이프, 지하철에 비치된 방독면, 대걸레자루 등 주변 소품을 활용해 위기를 넘긴다.

영화적 상상력으로 생각하고 웃고 넘어갈 만한 장면이 꽤 있기는 하지만, 유독가스로 인한 화학 테러 역시 현실에서 얼마든지 있을 법하다. 구조 헬기가 부족하다는 점이나 주인공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존재 등도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정석과 임윤아 연기 호흡이 돋보인다. 코믹부터 정통 드라마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지닌 조정석은 강도 높은 액션은 물론 ‘잔 내’ 폴폴 나는 연기로 관객을 웃기고 울린다. ‘공조’에 이어 두 번째 영화 출연인 임윤아도 능동적이고 책임감 강한 의주역을 안정적으로 연기했다.

고두심, 박인환, 김지영 등 중견 배우들은 ‘현실 가족’을 연기하며 무게 중심을 잡는다. 하나뿐인 아들, 남동생을 사지에 두고 온 엄마와 아빠, 누나의 애타는 심정을 저마다 절절하면서 코믹하게 연기했다.

감독 이상근
출연 조정석 임윤아
등급 12세 관람가
개봉 7월 31일



돈 워리

고아, 알코올중독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한 전신 마비. 미국의 만화가 존 캘러한(1951~2010)의 삶을 요약하면 이렇다. ‘돈 워리’는 그의 삶을 다룬 영화다. 큰 좌절에 빠진 한 인간의 극복기를 그리고 있지만, 관객이 존을 동정하거나 그에 공감하도록 끌고 가지는 않는다. 존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도 극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2014년 세상을 떠난 로빈 윌리엄스가 생전에 존 캘러한의 자서전을 읽고 영화화 판권을 사들였고, 거스 밴 샌트 감독과 ‘굿 윌 헌팅’을 촬영하고 있을 때 존 캘러한 전기 영화의 감독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주연을 맡은 로빈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영화 제작은 한동안 중단됐다가 호아킨 피닉스가 존 역으로 새롭게 캐스팅됐고 결국 ‘돈 워리’가 세상에 나왔다.

감독 거스 밴 샌트
출연 호아킨 피닉스, 조나 힐, 루니 마라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7월 25일



사자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뒤 세상에 대한 불신만 남은 격투기 챔피언 용후는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가 손바닥에 생긴 것을 발견한다. 그는 바티칸에서 온 구마 사제 안 신부를 만나 자신의 상처에 특별한 힘이 있음을 알게 된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의 존재를 알게 된 용후는 안 신부와 함께 악을 퍼뜨리는 검은 주교 지신을 찾아 나선다. 박서준이 격투기 챔피언 용후, 안성기가 구마 사제 안 신부, 검은 주교 지신을 우도환이 연기했다.

감독 김주환
출연 박서준 안성기 우도환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7월 31일



봉오동 전투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만주 봉오동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처음 승리했다. 이 봉오동 전투가 영화로 재현된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두 명의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촌민이었지만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독립군의 이야기를 그린다. 유해진은 ‘항일대도’를 가지고 다니며 민첩한 몸놀림과 대범함으로 일본군의 목을 거침없이 베는 독립군 황해철, 배우 류준열은 황해철이 친동생처럼 아끼는 독립군 분대장 이장하를 각각 연기했다. 조우진은 황해철의 오른팔인 마적 출신의 저격수 마병구를 맡았다. 봉오동과 유사한 곳을 찾기 위해 로케이션에만 15개월 넘는 시간을 투자했고, 촌민들의 생활을 재현하기 위해 실제 3만3천57㎡(1만평)의 땅에 미술팀이 4개월 동안 옥수수 농사를 지었다.

감독 원신연
출연 유해진 류준열 조우진
등급 15세 관람가
개봉 8월 7일



레드슈즈

할리우드 배우가 영어 대사로 목소리 연기를 했지만, 한국산 애니메이션이다. 백설 공주, 아서왕 전설, 책과 공나무, 헨젤과 그레텔 등 서양 고전 동화를 비틀어 신선함을 준다. 통통한 체형의 화이트 왕국 공주는 영원한 젊음과 미모를 주는 마법의 구두 레드슈즈를 우연히 신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한다.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던 ‘꽃보다 일곱 왕자’들은 저주에 걸려 못생긴 초록색 난쟁이로 변한다. 함께 공주의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성장한다.

감독 홍성호
출연 클로이 모레츠, 샘 클라플린
등급 전체관람가
개봉 7월 25일

‘대표 록페’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우리나라 대형 음악 축제의 시초이자 대표 록 페스티벌인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본격적인 여름과 함께 다시 찾아온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펜타포트 축제에는 사흘간 국내외 가수 60여 팀이 참여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미국 록밴드 더 프레이(The Fray), 일본 밴드 코넬리우스(Cornelius), 미국의 얼터너티브 록밴드 위저(Weezer)가 각각 9일, 10일, 11일의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확정됐다. 더 프레이는 영화 ‘트랜스포머:패자의 역습’에 삽입된 곡 ‘네버 세이 네버’(Never Say Never)로 국내에 알려진 밴드다. 코넬리우스는 블러, 스타팅, 비스티 보이즈 등 정상급 뮤지션들과 협업해 이름을 알리며 유럽·북미 시장에 진출한 팀이다. 위저는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결성된 4인조 밴드로, 2016년에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그 외 YB, 장범준, 김중서, 브로콜리 너마저, 에이프릴 세컨드, 디스 이즈 더 시티 라이프(타이거디스코·호란·하세가와 요헤이), 어게인스트 더 커런트, 크라잉넛, 투 도어 시네마 클럽, 세브달리자 등 국내외 팀들이 라인업에 포함됐다. 공연 외에 펜타쇼·펜타랜드·캠핑장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사회적기업 부스 등 지역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펜타포트는 지난해 누적 관객 수가 88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뮤즈, 스콜피온스, 트래비스, 케미컬 브라더스 등 1천200여 팀이 공연했다.

공연일정(장소) 8월 9~11일(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
티켓 7만2천원~20만원
☎ 1899-7188

레이니

미국 3인조 밴드 레이니(LANY)가 내한공연을 펼친다. 레이니는 모델 출신의 프런트맨 폴 클라인(보컬), 키보드리스트 레스 프리스트, 드러머 제이크 고스가 2014년 결성한 밴드다.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와 뉴욕(New York)의 머리글자를 따서 지은 팀명처럼 이들의 음악에선 미국적 느낌이 물씬 풍긴다. 데뷔 미니앨범 ‘애크러닉스’(Acronyms·약어)에 실린 싱글 ‘ILYSB’(I love you so bad)는 4천만회에 달하는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하며 성공을 거뒀다. 2017년 6월 발매한 첫 정규앨범 ‘레이니’(LANY)는 1980년대 라디오 방송을 듣는 듯한 복고적 팝 사운드와 1990년대 초반의 R&B 스타일로 빌보드 록 앨범 차트 4위, 얼터너티브 앨범 차트 5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정규 2집 ‘말리부 나이트’(Malibu Nights)도 냈다. 레이니의 내한은 2017년 7월 지산 밸리록 페스티벌 출연과 그해 8월 단독 공연, 지난해 4월 단독 공연 이후 네 번째다.

공연일정(장소) 8월 8일(올림픽공원 올림픽홀)
티켓 8만8천원
☎ 1544-6399



그레이스 카터

영국 출신 신예 싱어송라이터 그레이스 카터가 첫 내한공연을 한다. 2017년 데뷔 싱글 ‘사일런스’(Silence)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레이스 카터는 평론가와 음악 전문가가 그해 재능 있는 신예를 소개하는 ‘BBC 사운드 오브 2019’ 3위로 선정되며 영국 음악계에서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매혹적인 목소리로 섬세한 감정을 차분하면서도 강렬하게 전하는 가수다. 로린 힐과 아델을 떠올리게 하는 비브라토 풍부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찬사를 받았다. 싱글 맘인 어머니와 피부색이 다른 자신의 정체성, 가족을 버리고 떠난 친아버지의 존재 등으로 고통받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노래하며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그의 노래는 듣는 이에게도 위로를 건넨다.

공연일정(장소) 8월 22일(서울 홍대 무브홀)
티켓 7만7천원
☎ 1899-0042

10CM

1인 밴드 10CM(십센치)가 서울에서 여름 소극장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1020’이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10CM는 지난해에는 ‘10100’라는 제목으로 소극장 공연을 했다. 올해 여름 소극장 콘서트 제목은 10CM의 ‘10’과 이번 콘서트에서 연주하게 되는 20곡의 ‘20’을 합성해 지어진 이름이다. 공연에서 선보일 20곡은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10CM는 2010년 남성 듀오로 데뷔해 ‘아메리카노’, ‘안아줘요’,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등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전 멤버 윤철중이 2017년 탈퇴하고, 권정열 1인 밴드 체제로 활동 중이다.

공연일정(장소) 8월 8~11, 15~18일(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화암홀)
티켓 8만8천원
☎ 1544-1555





록 콘서트 같은 ‘스쿨 오브 락’



공연일정(장소) 8월 25일까지(샤롯데씨어터)
티켓 6만~16만원
☎ 1577-3363

여름방학을 맞은 자녀와 공연장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딱 좋은 뮤지컬이 기다리고 있다.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으로 유명한 ‘뮤지컬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신작 ‘스쿨 오브 락’이다. 할리우드 스타 잭 블랙 주연 동명 영화(2003)를 뮤지컬로 만든 이 작품은 2015년 12월 미국 브로드웨이, 2016년 11월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막을 올린 이후 인기리에 공연됐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 첫 시동을 걸었다. ‘스쿨 오브 락’은 제목 그대로 게으른 록스타 지망생 ‘듀이’가 친구 이름을 사칭해 사립학교 대리 교사로 취직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뜨거운 록 사운드로 그린다. 무대의 진짜 주인은 아역 배우들. 온실 속 화초 같던 아이들이 음악을 만나 훌쩍 성장하는 과정은 몽클한 감동을 준다. 의기소침하던 아이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안하무인이던 아이는 친구와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

그 과정에서 이들이 선사하는 생생한 라이브 연주는 압권이다. 베이스리스트 ‘케이티’를 연기하는 르멀타, 기타리스트 ‘잭’ 역의 브랜던 러틀리지(11), 드러머 ‘프레디’ 역의 조지 오멧(12), 키보디스트 ‘로런스’ 역의 토비 클라크(12) 등 10세 남짓의 배우들은 모두 수준급 연주를 뽐낸다. 러틀리지는 2살 때 처음 기타를 잡았고 클라크는 3살부터 꾸준히 피아노를 친 노력파다. ‘스쿨 오브 락’은 8월 25일까지 서울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한 뒤 9월 1~15일 부산 드림씨어터, 9월 21~29일 대구 계명아트센터로 넘어간다. 이후 월드투어는 뉴질랜드, 유럽 등지로 이어진다.

헤드윅
히트 뮤지컬 ‘헤드윅’이 돌아왔다. 올해는 제1대 헤드윅 오만석부터 새 얼굴인 H.O.T. 강타까지 쟁쟁한 캐스팅이 화제다. 8월 16일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막하는 ‘헤드윅’은 뮤지컬계 스타 등용문으로 꼽혀왔다. 조승우, 송창의, 윤도현, 김동완, 박건형, 오만석, 엄기준, 조정석, 김다현, 송용진, 손승원 등 헤드윅을 거친 스타는 셀 수 없이 많다. 올해 헤드윅 역에 캐스팅된 오만석은 15년 전 생소한 뮤지컬이던 ‘헤드윅’을 흥행시킨 일등 공신이다. 이 작품에 처음으로 합류한 그룹 H.O.T. 출신 강타도 눈길을 끈다. 그는 지난해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 뮤지컬 무대에 데뷔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뮤지컬 도전이다. 지난 시즌 ‘헤드윅’에 출연한 정문성, ‘지킬 앤 하이드’에서 활약한 전동석, ‘엘리자벳’과 ‘스위니토드’에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한 윤소호도 같은 역으로 출연한다. 이 밖에 헤드윅 남편 이츠학 역에는 제이민, 유리아, 홍서영 등이 캐스팅됐다. 무대에서 ‘헤드윅’과 협연할 밴드 ‘디 앵그리 인치’에는 이준 음악감독 등이 참여한다. 동독 출신의 실패한 트랜스젠더 록 가수 헤드윅 이야기를 그린 이 뮤지컬은 2005년 4월 12일 국내 초연됐다.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향해 날리는 묵직한 펀치, 아름다운 음악의 힘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다.

공연일정(장소) 11월 3일까지(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티켓 5만5천~9만9천원
☎ 02-3485-8700



맘마미아!
1970~1980년대 청년기를 보낸 이에게는 추억을, 요즘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안겨줄 뮤지컬 ‘맘마미아!’가 울려를 신나는 사운드로 물들인다. 스웨덴 혼성 그룹 아바(ABBA) 22개 히트곡을 엮은 ‘맘마미아!’는 1999년 런던에서 초연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한국에선 2004년 첫 무대를 가졌으며 2016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33개 지역에서 195만 관객을 동원했다. 200만명 고지가 눈앞이다. ‘롱런’의 비결은 역시 작품의 힘이다. 찬란한 그리스를 배경으로 엄마와 딸의 사랑, 오랜 친구들의 우정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국내에서 3년 만에 성사된 이번 공연에는 원년 멤버인 성기윤을 비롯해 최정원, 신영숙, 남경주, 이현우, 박준면, 오기쁨 등 실력파 배우들이 총출동한다. 여기에 그룹 f(x) 루나와 이수빈이 ‘소피’ 역할로 상큼한 활력을 불어 넣는다. 제작사 신시컴퍼니는 지난 1월 8~18일 배우 오디션을 열었는데, 1천8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고 한다.

공연일정(장소) 9월 14일까지(LG아트센터)
티켓 6만~14만원
☎ 02-577-1987



백조의 호수 vs 백조의 호수

클래식 발레의 명작 '백조의 호수'.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이 걸작은 오랜 시간 각국에서 끊임없이 변주되며 여러 발레단의 고정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만났다. 올해 여름에는 한국의 대표 발레단인 국립발레단과 러시아 유명 민간발레단 상트페테르부르크발레단의 작품이 소개돼 발레 애호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다. 먼저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고전 발레의 아버지 마리오스 프티파와 그의 조수 레프 이바노프가 189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공연한 버전을 유리 그리가로비치 전 볼쇼이 발레단 예술감독이 각색한 것이다.



국립발레단

공연일정(장소) 8월 16~17일(부산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8월 28~9월 1일(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티켓 부산 5만~9만원, 서울 5천~8만원
☎ 02-587-6181

상트페테르부르크발레단은 마린스키 발레단의 콘스탄틴 세르게예프가 재안무한 버전을 그대로 무대에 올린다. 두 버전은 결말과 소품이 조금씩 달라 보는 재미를 더한다. 주역 무용수들의 조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립발레단 무대에서는 지난 1월 출산한 수석무용수 김리회를 만날 수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버전에서는 이 발레단의 간판 무용수 이리나 코레스니코바의 우아한 안무를 볼 수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발레단

공연일정(장소) 8월 28일~9월 1일(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5만~12만원
☎ 02-541-6236

한여름 밤 도심 속 여유 국악콘서트 '우면산 별밤축제'

국립국악원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국악콘서트 '우면산별밤축제'를 연다. 한여름 밤 도심 속 여유를 추구하는 축제는 2014년 처음 개최된 이후 다채로운 무대로 사랑받았다. 전석 무료인 데다 음식 반입이 가능하다. 돛자리를 깔고 간단한 도시락과 와인, 맥주를 즐기며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서울예술단'은 8월 10일 '굿 세워라 금순아'를 통해 전통 연희의 매력을 전한다. 8월 24일에는 '놀플러스'가 전통 사물놀이를 재해석한 '판도라 PAN:DORA'로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이밖에 '세움(with 고블린파티)'의 음악극 '용궁', 동서양 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밴드 '동양고주파'의 특이 마련됐다. 폐막일에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 '재즈와 민속악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두 장르의 깊이 있는 가락과 장단을 들려준다. 공연은 국립국악원 야외공연장 연희마당에서 진행하며 선착순 700명까지 네이버 예약 신청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일정(장소) 9월 7일까지(국립국악원 야외공연장 연희마당)
티켓 무료
☎ 02-580-3300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거장 정명훈이 8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세 번째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연다.

정명훈을 중심으로 2017년 처음 조직된 이 오케스트라는 남북교류를 목적으로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 전·현직 단원이 뭉친 프로젝트 단체다. 정 지휘자는 2017년 첫 공연을 앞두고 "언젠가 북한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이 이 오케스트라의 목표"라고 설립 목적을 뚜렷하게 밝혔다.

그는 2011년 9월 평양에서 북한 국립교향악단 및 은하수관현악단과 리허설을 진행했고, 2012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은하수관현악단과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닉의 합동 연주를 이끌기도 했다. 지난해 두 번째 원코리아 정기연주회에서 북한 성악가들과 협연을 추진했으나 불발돼 안타까움을 남겼다.

정명훈은 "나는 음악인이기 전에 한국인이며 한국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남북한 문제"라며 "북한 연주자들과 함께 하는 무대가 성사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통일을 꿈꾸고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돕기 위해 계속 연주를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연에선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을 들려준다. 정명훈의 출연료는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기부된다.

공연일정(장소) 8월 18일(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티켓 4만~12만원
☎ 1577-5266



김지혜 지음/ 창비 펴냄/ 244쪽/ 1만5천원

현장과 밀착해 인권과 혐오 문제를 연구해온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버무려 일상에 숨겨진 혐오와 차별의 순간을 보여준다. 저자는 모든 사람은 가진 조건이 달라서 각자 위치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해도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차별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는 이유다. 또 우리는 때에 따라 특권을 가진 다수자가 되기도 하고, 차별받는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선량한 마음만으로 평등은 이뤄지지 않으며, 익숙한 질서 너머의 세상을 상상해야 하는 이유다.



알렉산드라 W. 로그 지음, 박미경 옮김/ 행복한숲 펴냄/ 372쪽/ 1만8천원

왜 떡볶이와 치킨과 맥주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을까. 책은 배고픔과 포만감, 갈증, 맛과 냄새, 음식 선호와 혐오, 충동과 자제력, 폭식증과 거식증, 과식과 비만, 음주와 흡연 등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폭넓은 주제를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한다. 행동과학자이자 '초미각가'인 저자는 뉴욕시립대에서 한 '먹고 마시는 심리학' 강의 수강생이 해마다 늘어 다 수용하지 못하자 이 책을 썼다.



프랭클린 포터 지음, 이승연 박상현 옮김/ 반비 펴냄/ 324쪽/ 1만8천원

구글로 검색을 하고, 페이스북에서 친목을 다지고, 아마존에서 쇼핑하고 이를 위해 온종일 애플 기기를 들여다보는 일상에 대해 저자는 경고한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기업들의 광고와 달리, 사람들은 편의성에 중독되고, 불안정하고 편협하며 오류투성이인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을 뿐이라고. 어떤 뉴스를 읽을지,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길로 이동할지, 어떤 친구를 사귈지 거대 테크 기업이 만든 알고리즘이 제안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인간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두루 거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판이 설득력을 더한다.



맥스 애덤스 지음, 김희정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388쪽/ 1만6천원

세계 곳곳의 유적지를 누비고 다니던 영국의 고고학자는 어느 날 갑자기 16만㎡의 삼림지를 사들여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숲에서 나무를 관찰하고 숲을 굽고 온갖 물건을 만들면서 나무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와 지혜를 선사한 원천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절감한다.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서 걸어 올린 나무 이야기, 각각의 나무에 얹힌 문헌과 전설, 풍습과 금기를 아름다운 세밀화와 함께 흥미롭게 펼쳐놓는다.



김애란 지음/ 열림원 펴냄/ 304쪽/ 1만3천500원

소설가 김애란이 등단 17년 만에 처음 내놓은 산문집. 국숫집 '맛나당'의 딸로서, 사범대에 가라는 어머니의 뜻을 거르고 들어간 예술학교의 학생으로서, 또 소설가로서, 시민으로서, 김애란으로서 지나는 시간과 사람에 대한 작가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펼쳐놓는다.



박상영 지음/ 창비 펴냄/ 344쪽/ 1만5천원

올해 젊은작가상 대상을 받은 '우럭 한점 우주의 맛'을 포함한 중단편 4편을 모은 박상영의 두 번째 소설집. 30대 초반의 작가 '영'을 주인공으로 한 연작 소설이기도 하다. 게이 남성의 사랑과 이별을 가벼운 어조로 유머러스하게 그리는 듯하면서도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에 가 닿는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의 관심으로 국내 출간 전 영국에서 출간 계약이 이뤄졌다.



안동시 제공

도산서원

조선 시대 핵심 이념인 성리학을 보급하고 구현한 장소인 서원(書院)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서원은 공립학교인 향교(鄕校)와 달리 지방 지식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 성리학 가치에 부합하는 지식인을 양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를 사표(師表)로 삼아 배향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모두 9곳이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중종 38년(1543)에 ‘백운동서원’이라는 명칭으로 건립한 조선 첫 서

조선 성리학 산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됐다

글 박상현 기자

원인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논산 돈암서원으로 구성된다. 16~17세기에 건립한 이 서원들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 훼손되지 않았고, 2009년 이전에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병산서원과 옥산서원은 2010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에도 포함돼 세계유산 2관왕이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에 대해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하는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라며 “성리학 개념이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서원을 등재하면서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이상 1995년), 창덕궁, 수원 화성(이상 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상 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년)을 포함해 세계유산 14건을 보유하게 됐다.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2004년), 개성역사유적지구(2013년), 그리고 중국 동북지방 일대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2004년)를 합치면 한민족 관련 세계유산은 17건에 달한다. 내년에는 서남해안 일부 갯벌을 묶은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이 자연유산 등재 심사를 받는다.

‘연꽃들의 잔치’ 울산 화야댐 상류 생태습지 개방

글 김근주 기자

울산 화야댐 상류 생태습지가 8월 25일까지 개방된다. 자연 친화적인 방법인 수생식물로 정화가 이뤄지는 화야댐 생태습지는 약 5만㎡의 연꽃과 12만3천㎡의 부들·갈대 등이 장관을 이룬다.

탐방은 울주군 웅촌면 통천초소에서 생태습지까지 왕복 4km 구간을 생태해설사 설명과 함께 2시간 정도 도보로 돌아본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수림이 우거진 독특한 자연환경과 옛 통천마을의 변모된 모습, 수질 정화를 위해 조성된 생태습지 등을 볼 수 있다. 수생식물로 물을 정화하는 원리를 체험할 수도 있고, 생태습지에서 재배해 가공한 연근차와 홍보용품을 제공한다. 연근차 시음 행사도 마련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보호를 위해 탐방 인원은 하루 100명 이내, 건



울산시 제공

학 시간은 오전·오후 등으로 제한된다. 탐방 신청은 8월 20일까지 울산 시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water.ulsan.go.kr) 생태습지 탐방코너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이하는 탐방이 제한된다. 화야댐은 2012년 전국 최초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개방했으며, 지난 7년 동안 울산 시민과 타지역 주민 등 2만4천여 명이 다녀갔다.



목포시 제공

남만 항구 목포, 국제슬로시티 인증

글 여운창 기자

목포시는 일제강점기 근대역사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원도심 지역과 아름다운 자연경관, 주민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외달도와 달리도 등 인근 섬을 슬로시티 핵심 거점지역으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목포시는 지역이 지닌 매력과 강점을 부각해 이전의 다른 슬로시티와 차별화된 목포만의 새로운 슬로시티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목포 관광의 경쟁력인 맛, 역사, 예술을 담아 1천만 관광객이 모여드는 목포 브랜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촌뉴딜 300

전남 목포시가 지난달 슬로시티 발상지인 이탈리아 오르비에토에서 열린 2019 국제슬로시티 총회에서 슬로시티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국내에서는 16번째, 세계적으로는 253번째 슬로시티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목포시의 공동체와 생태환경 가치 존중, 문화예술 부흥, 맛의 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독창적 슬로시티 푸드 개발 노력 등을 높게 평가했다. 전통가치 계승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도 슬로시티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했다. 국제슬로시티 지정으로 목포시는 세계적 브랜드인 슬로시티 로고를 각종 마케팅과 홍보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으로 선정된 달리도와 사랑의 섬 외달도를 인공 시설을 최소화한 국내 최고의 바다 자연 정원으로 조성한다. 시는 슬로시티 목포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슬로시티 목포 선포식’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슬로시티는 1999년 이탈리아에서 느린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시작됐으며, 지역 주민 중심·전통 보존·생태주의 등 느림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슬로시티 정신으로 추구하고 있다.

선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 평화로…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글 임보연 기자

‘평화·공존·번영’을 주제로 한 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1st Pyeong 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PIPFF)가 8월 16~20일 평창과 강릉에서 열린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서 비롯된 평화에 대한 열망을 이어받아 평화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담은 영화를 선보이는 테마영화제다. 장편 5편, 단편 34편 등 33개국 85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특히 첨예한 관심사인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영화를 비롯해 난민, 인권, 전쟁 등 세계적 이슈를 담은 신작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개막작은 북한 림창범 작 ‘새’(Birds)를 선정했다. 1992년 일본이 제작비 1억원을 투자하고 북한 스태프와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으로, 제5회 동경국제영화제 아시아 주작 영화주간에 상영됐다. 6·25 전쟁 때 헤어져 남과 북에서 조류학자로 활동하던 부자가 조류연구를 위해 날려 보낸 새로 인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조류학자 원흥구, 원병오 박사 부자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으며, 드물게 정치색채를 띠지 않고 분단과 이산에 대한 휴머니즘적인 접근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한국전쟁 부문에서는 ‘평화’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 19편을 선보이고, 스펙트럼 부문에서는 전쟁, 이민, 인종, 차별 등 갈수록 첨예해지는 사회적 이슈에 관해 주목할 만한 최신작들을 망라했다. 평양시네마 부문에서는 평창남북영화제만의 고유한 색선으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선보이는 북한 영화 ‘봄날의 눈석이’(1985)는 2003년 부산국제영화 북한 영화특별전 상영 당시 일반 관객들은 제외한 게스트들만 관람할 수 있는 제한 상영 판정을 받은 작품이다. 유일한 남북합작 장편 애니메이션인



2005년 작 ‘왕후 심창’, 북한 장성급 관료들 인터뷰와 북한의 아카이브 자료들, 고(故) 이희호 여사 등 남한 주요 인사들의 인터뷰를 담아 남북한의 역사를 돌아보는 ‘한반도, 백 년의 전쟁’ 등이 상영된다. 그 해의 주목할만한 이슈를 선정해 관련된 주제를 담은 영화들을 모아 상영하는 기획전인 ‘POV:지상의 난민’전도 있다. 중국 반체제 예술가이자 세계적인 거장 아이웨이웨이의 신작 다큐멘터리 ‘남겨진 사람들’ 등 9편의 영화들은 다양한 형식과 시선으로 난민 문제를 들여다본다. 분단 장르 영화에 대한 성찰을 다룬 기획전도 있다.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신호탄 격인 ‘쉬리’부터 ‘공동경비구역 JSA’,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작’까지 여섯편의 영화를 통해 한국전쟁이나 분단 상황을 살핀다.